

## 다문화시대 기독교통일교육에 대한 보편적학습설계(UDL) 적용 제고

김성결 (다음학교/교사)\*

seongkyeol@gmail.com

안미리 (한양대학교/교수)

mlahn@hanyang.ac.kr

### 한글 초록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제 다문화라는 사회적 변화를 마주하게 되었고 이는 통일의 '개념'과 통일을 준비하는 '주체'에 대한 확장된 성찰과 접근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문화주의에 기반을 둔 통일교육이 새롭게 제시되기 시작했으며 기독교통일교육 분야에서도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제안을 반영하는 추세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새로운 접근에 대한 방향 제시 및 소개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실천에 대한 체계나 가이드라인은 미미하다. 파편적으로 나열되는 정보는 개념 정립에 있어 혼란을 되레 야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결여는 곧 미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기독교통일교육의 현주소를 살피고 구체화함으로써 개념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다문화시대에 적합한 기독교통일교육의 실천 방안을 보편적학습설계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구체적인 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 다문화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기독교통일교육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2) 다문화적 접근의 기독교통일교육의 확립 및 확산에 있어 보편적학습설계의 새로운 접근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보편적학습설계가 다문화적 기독교통일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 제1저자: 김성결, 교신저자: 안미리

데 적합한 방법론인지 알아보고 보편적학습설계가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획일화에 도움을 주는 적절한 모델인지 알아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과 UDL 모두 이질감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과 보편적학습설계의 이론과 가이드라인이 다문화 기독교교육에 융통적으로 적용될 때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의 다양성이 체계 속에서 획일화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 《 주제어 》

다문화시대, 다문화, 통일, 기독교통일교육, 보편적학습설계

## I. 들어가는 말

한국 사회는 현재 이주 노동자, 유학생, 북한 이탈주민 등의 증가로 OECD 기준에 따라 다문화 국가로 새롭게 분류되었다(통계청, 2018). 한국이 다문화 국가로 분류되면서 통일에 대한 담론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양금희, 2016; 박성춘, 2016; 배한동, 2009). 기존의 통일교육은 남북의 '체제통일'에 집중하여 동질성 회복 등 민족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지만(조정아, 2007, 287-288), 이미 다문화사회가 된 한국은 더욱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국제적인 범위에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유재덕, 2015, 257-259; 조정아, 2007, 290-291). 이러한 요구는 기독교통일교육 관련 연구에서도 반영되어, 평화와 사회통합의 개념을 중점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이질성'을 평화롭고 조화롭게 융합시켜가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강조되고 있다(윤응진, 2012). 즉, "통일"이 정치적 과제뿐만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 있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교육"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해주고 있다(양금희, 2016, 232). 본 연구는 현 한국의 사회적 다변화에 맞추어 기독교통일교육

은 어떠한 변화를 수용하고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최근 연구현황을 구체화 시키고자 하였고 더 나아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체계 및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의 방법론 영역에서 인간의 다양성과 차이를 수용하고 모두에게 동등한 교육과정 접근을 실현으로 목적으로 하는 보편적학습설계를 적용함으로써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의 확산을 기대하고 제시한다.

## II. 기독교통일교육

### 1. 기독교통일교육의 목적 및 특징

기독교통일교육은 에베소서 2:14에 근거하여 성경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적 기여로서 ‘남북통일’을 하나님의 나라 구현이자 “평화와 화해의 복음의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윤응진, 2012, 42). 더불어, ‘통일’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 및 확장을 위한 사역이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순종적인 삶의 양식을 확산하는 것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과제이자 사명이라고 해석한다(이현우·한상진, 2017, 157). 이런 목적하에 기독교통일교육은 통일에 있어 ‘평화’와 ‘사회통합’이라는 2가지의 주요 개념을 제시 및 강조한다(양금희, 2016; 윤응진, 2012; 이가현, 2015; 이제현, 2014; 이현우·한상진, 2017).

‘평화’란 다양한 가치와 이상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를 보편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이제현, 2014, 40).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평화의 개념은 전쟁이나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기독교통일교육에서의 ‘평화’란 우주적 차원의 모든 만물의 하나됨(엡 1:10)과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로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과 인간이, 피조물과 인간, 그리고 피조물과 피조

물이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이가현, 2015, 57-61). 이를 기반으로, 기독교통일교육은 상호이해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윤응진, 2012; 이가현, 2015; 이제현, 2014) 주요 내용은 <표 1>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표 1〉 평화교육적 통일교육의 주요요인

학자	주요 내용
이제현 (2014)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남북갈등과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분담임을 이해하고 극복을 위한 자세를 기른다.</li> <li>2. ‘국가안보’ 개념을 확장한 ‘인간안보’가 강조되어야 한다.</li> <li>3. ‘적극적인 평화’의 개념 도입을 통해 남북의 분단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li> <li>4. 상대방을 대결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한다.</li> <li>5. 일상생활에서의 성찰을 통해 평화 능력을 기르고 평화를 건설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li> </ol>
윤응진, (2012)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유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li> <li>2.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 노력함으로써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li> <li>3.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하여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야 한다.</li> <li>4.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격적이며 폭력적인 방식을 거부하고 상호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혀가는 평화적 문제해결 방식들을 개발하고 실험해야 한다.</li> <li>5. 상호간에 학습을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li> </ol>

출처: 윤응진(2012, 51-52)과 이제현(2013, 32-34)내용을 재구성함

기독교통일교육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주요 개념은 ‘사회통합’이다(양금희, 2016; 조만준, 2017). ‘사회통합’은 사회학에서 연구되는 개념으로 어떠한 체계화된 전체에 대한 부분들의 결합을 의미한다(최윤철, 2016, 52-53).

통일 문제에 비추어 정리하면, 분단국과의 통합은 일차적으로 분단의 지리적 경계선의 제거를 의미하는 ‘체제통합’과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영역에서 결합으로서의 ‘사회통합’으로 구분될 수 있다(이재열 외, 2014, 116-122). 기독교통일교육에서 지향하는 통일의 형태는 ‘사회통합’으로, 남북이 제도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을 넘어 ‘사람’이 통일되고 ‘사회’가 통합되는 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통일을 남북이 정치적으로 한 나라가 되는 단순한 정치적인 차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간주하여 통일의 이전, 그 이후 등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여 ‘지속되는 프로세스’라고 개념화한다(양금희, 2016, 240-241). 이러한 맥락에서 양금희(2016)는 통일은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하며 사회적 성숙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모두의 문제가 되어 된다고 제시한다(240-245). 사회통합으로서의 통일은 크게 ‘조화와 융합’ 그리고 ‘사회 모든 구성원의 참여’로 재조명될 수 있는데, 모두가 마음을 열어 가치관을 공유하고 공동의 목적 및 가치규범을 만들어감으로써 유대감을 형성하고 개개인이 정서적으로서 공동운명체라고 느낄 수 있도록 공통된 소속감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243-245).

결론적으로 기독교통일교육은 통일을 ‘하나님 나라 실현’으로 간주함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현재’부터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제시한다(윤응진, 2012, 42; 이현우·한상진, 2017, 157). 또한 통일을 ‘분단의 극복’이라는 체제적 통합보다 사람과 사람 간의 ‘의식’에서의 유대감 형성을 이루는 사회통합적 해석을 택하고 있으며 모두가 서로의 가치관 및 배경을 존중하고 함께 문화적 가치 및 규범을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정의한다(양금희, 2016; 조만준, 2017) 이러한 맥락에서 양금희(2016)는 기독교통일교육이 ‘통일역량’ 함양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통합으로서의 통일을 일궈내기 위해서는 통일 관련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서로가 ‘존중’하며 공동된 가치 및 규범을 공유할 수 있기까지 필요로 하는 ‘역량’ 함양 또한 중요하다(252-258). 그가 제시한 통일역량은 <표 2>와 같다.

〈표 2〉 통합역량

역량	내용
지식	북한 이해, 통일한국의 비전, 통일의 필요성, 통일과 통합 등
기술	북한인과 관계 맺기, 통일 공동체 형성하기, 통일 사역 훈련하기
태도	통일 성품 형성, 하나님 나라 시민 성품 형성
정서	평화, 관용, 개방, 연대, 배려, 환대, 협동, 신뢰, 사랑, 인내, 자비 등
가치와 윤리	기독교적 통일 이해, 통일
동기	통일 비전 품기, 통일에로의 소명과 응답

출처: 양금희 (2016, 255)

## 2. 기독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 1) 통일준비를 위한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

기독교 내에서 통일이나 통일교육은 꾸준한 관심 주제로 자리 잡아 왔다. 이는 지속적으로 발간된 통일과 통일교육과 관련된 연구물에서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심과 노력 덕분에 기독교통일교육의 발전이 가능했다고 판단된다(임창호, 2017, 20-21). 최근 기독교통일교육의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통일교육을 위한 고찰,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통일교육의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는데(21), 그중에서도 2010년을 기준으로 다문화룰 다루는 기독교통일교육의 연구들이 새롭게 등장함을 파악할 수 있다(박미라, 2011; 유재덕, 2015; 조만준, 2017). 이는 현재 한국이 218만 명 이상의 외국인과 이주자를 수용하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통계청, 2018) 자연스럽게 제시된 접근으로 통일을 보다 보편적인 의미에서 해석해야 함을 제안한다(유재덕, 2015; 정연주, 2015).

마티니엘로(Martiniello, 2008)는 기독교통일교육을 실행함에 있어 참여하는 개인 혹은 집단의 문화나 정체성이 제한되거나 고립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단일민족이라는 제한적인 개념을 초월하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실현될 것을 강조한 바 있다(유재덕, 2015, 262에서 재인용). 실제로 남한과 북한은 1950년 분단 이후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 혹은 공산주의라는 남한의 체제와는 상이한 정치적 사상에 근거하여 언어와 생활, 문화 등에서 상이한 삶의 방식을 취해왔다(민정하, 2012, 32). 따라서 민정하(2012)는 남북을 더는 단일민족 및 단일 문화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남북에 대한 이해나 통일문제에 대해 다문화적인 시각을 취해야 함을 주장한다(41). 다문화적 접근의 통일교육이란 '단일 민족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남과 북의 이질성을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며 포용해 가는 '과정'을 더욱 중시하며, 이질적인 집단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공존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일교육을 제공한다(정연주, 2015, 35-36).

## 2) 다문화적 접근의 기독교통일교육

다문화적 접근의 통일교육은 상이한 집단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포용'과 '수용'의 가치를 중심에 둔다(정연주, 2015, 6). 따라서, 다문화적 기독교통일교육이란, 기독교 신학에 근거하여 통일을 대비하는 교육이며 문화적 간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질성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이를 포용하며 화해할 수 있는 관용적인 태도를 기르는데 집중한다(민정하, 2014, 74). 아쉽게도 현재 다문화적 접근의 기독교통일교육에 대해서는 소수의 연구가 방향성에 대해 부분적으로 언급할 뿐 공식적인 프레임이나 체제는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조만준, 2017, 181). 그중 정윤주(2015)와 민정하(2014)는 공공신학에 기반하여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개인과 공동체의 상생, 공존의 패러다임 구축이 공통으로 강조되고 있다(민정하, 2014, 119-125; 정연주, 2015, 91-94). 유재덕(2015)은 이와 유사하게 기독교통일교육의 내용이 기독교 교훈과 전통 가운데 평화와 인권, 사랑과 배려와 같은 다문화주

의의 핵심 가치들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262). 기독교통일교육의 다문화적 접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다문화기독교통일교육의 내용

저자	핵심 주제	교육 내용
유재덕 (2015)	다문화주의의 핵심 가치	평화, 인권, 사랑과 배려
민정하 (2014)	다양성	다양성에 대한 이해, 편견에 대한 비판적 사고 함양, 간 문화적 이해와 태도 형성
	관계성	다음의 영역에서 화해를 목표로 함: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
정연주 (2015)	창조성	하나님 나라의 평화 비전, 다문화를 위한 상상력, 창의적인 갈등 해결
	포용성	포용적 자세 함양

출처: 유재덕 (2015, 262), 민정하(2014, 119-125)와 정연주(2015, 91-94)내용을 재구성함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의 내용적 특징은 평화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평화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 다양성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이를 포용하는 자세와 태도를 기르는 데 집중한다고 할 수 있었다(민정하, 2014; 정연주, 2015; 조만준, 2017). 유재덕(2015)은 더 나아가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은 개인 및 사회집단을 대상으로 성찰과 소통의 능력 배양에 집중하여 사회의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264). 인종, 문화, 종교, 국경을 떠나 모두가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갖고 통일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 및 기술 향상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다문화적 기독교통일교육은 개인 스스로가 성찰하여 정체성을 지속해서 재구성할 수 있는 주체를 발굴하는 데 집중한다. 이에 근거하여 유재덕(2015)이 제시된 교수학습



원리는 <표 5>와 같다.

<표 5>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의 교수 학습 원리

내 용	
1	‘문화 감응 교육’을 적용한다. 교사는 성서 및 신학적 내용과 다문화적 배경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다.
2	교사는 학습자들이 다중적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학습을 유도한다. 1) 구조화된 과제 부여 2) 학습자를 배려하여 배치 3) 지속적인 성취 수준 점검이 가능한 소규모 그룹 구성
3	학습자들과 교육 내용 결정을 공유한다

출처: 유재덕(2015, 265-266) 내용을 재구성함

정윤주(2015)와 민정하(2012)경우는 노마 애버리스트(Norma Everist)의 신앙공동체를 위한 8가지 교수-학습 방법을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를 <표 6>에 정리하였다.

<표 6> 노마 애버리스트의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한  
다문화기독교통일교육 교수 방법

방법	내 용
개인-공동체	개 인: 자기 주도적 학습, 개별화 프로그램 공동체: 독서, 튜터링, 멘토링, 역할 모델, 사례문답지도, 공동예배 등
발표-토의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임을 전제로 한다. 예시: 비공식 토의, 포럼, 브레인 스토밍, 원격 컨퍼런스
성찰-대면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성찰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를 획득한다. 예시: 일기쓰기, 공유적 실천, 명상지도, 등

경험- 연구	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 등 홀리스틱(holistic) 한 영역에서의 경험에 초점을 둔다. 예시: 사례연구, 모의활동, 역할극 등
-----------	---

출처: 민정하(2014, 126-129)와 정연주(2015, 105-107)내용을 재구성함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 교수 방법론을 살펴본바, 학자에 따라 상이한 접근이 제시되고 있었으며 보편적으로 제시되는 방법론은 없었다. 일반적으로 학습자 스스로 다양성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향상하게 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영역 및 토론장에서 다양성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향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민정하, 2014; 유재덕, 2015; 정연주, 2015).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의 보편화, 일관성 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영역 내에서의 보편적인 교수 방법 혹은 교수 전략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III. 보편적학습설계

#### 1. 보편적학습설계의 개념

최근 국내에서 다문화주의, 다문화교육 등 다문화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방법론 또한 주목받고 있는데(송진숙, 2016; 안미리 2012). 그중 하나가 보편적학습설계(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UDL)이다. 보편적학습설계는 인간의 다양성과 차이를 수용하며, 모두에게 동등한 교육과정 접근을 실현하고자 미국 응용특수공학센터(CAST)에 의해 개발됐다(곽승철, 2010, 11에서 재인용). 여기서 “보편적”이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하나의 해결책을 의미하기보다는 학습자의 개별적 특징과 차이로부

터 야기되는 요구를 인지해야 함을 의미한다(배찬효·정동영, 2013, 49). 이와 관련하여 로즈와 메이어(Rose & Meyer, 2002)는 개별 학습자의 고유한 특징과 차이를 고려한 가장 적합한 방법 및 수단을 공급함으로써 개별 학습자의 학습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황윤자·박현미·안미리, 2014, 3에서 재인용). 모든 학생에게 유용하면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의 교육적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UDL은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방법, 교수 자료, 교육 평가 등에서 융통성 있는 설계 및 제공을 가능케 하는 이론적 틀이자 지침으로서(노석준, 2012, 97-125) 개인적 차이와 이질적인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 접근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CAST, 2008).

## 2. UDL의 세 가지 원리

로즈, 메이어, 그리고 척(Rose, Meyer & Chuck, 2010)에 따르면 UDL은 차별화된 교육을 위해 융통성 있는 교수-전략을 중심을 두고 있으며 상이한 학습 스타일, 학습 능력, 학습 장애 등을 가진 학습자를 고려한 적절한 대안을 포함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황윤자·박현미·안미리, 2014, 7에서 재인용). 즉, 모든 학생의 개별화된 목표 실행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 다양한 방식의 표상 제공, 2) 다양한 방식의 행동과 표현 수단 제공, 3) 다양한 방식의 참여 기회 제공을 기본 원리로 제시한다(7).

### 1) 다중적인 표상방법 제공

메이어와 고든(Meyer & Gordon, 2014)는 학습자가 정보를 의미화함에 있어 최적의 효과를 보일 공통적인 표상(representation) 방법은 없다고 주장하며 다중적인 표상 방법(multiple means of representation)을 제공할 것을 제시하였다(황윤자·박현미·안미리, 2014, 131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감각 장애가 있는 학습자, 난독증이 있는 학습자, 다른 언어 또는 문화적 관습에 익숙한 학습자는 모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김용성 외, 2019, 396-397). 따라서 단순한 인쇄된 매체 보다는 시각적 또는 청각적 수단을 제공하거나, 텍스트의 음성변환, 글자 및 그림 크기 축소 혹은 확대, 언어와 상징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 제공 등 다중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제공을 제시한다(황윤자·박현미·안미리, 2014, 131). 이와 관련하여 홀, 메이어 그리고 로즈(Hall, Meyer & Rose, 2012)는 UDL은 무엇을(what) 가르치고 배울 것인지를 융통성 있게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학준·권순우·김용성, 2018, 8에서 재인용).

## 2) 다중적인 표현방법 제공

학습자가 학습 환경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홀, 메이어 그리고 로즈(2012)는 UDL의 두 번째 원리로서 다중적인 표현방법(multiple means of expression)을 제안하였다(이학준·권순우·김용성, 2018, 292에서 재인용). 학습자가 어떻게(how) 학습할 것인지 그리고 배운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융통성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과제 설정에 있어서 그림이나, 논술, 드라마 등 학습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을 표현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모델 제공, 연극, 영상 등 다양한 매체 스타일로서의 학습 제공 및 융통성 있는 기회 제공이 있겠고, 일부 장애 학생들을 위한 보조기기 제공과 온라인 수업 경우 외국인 학생 및 청각 장애 학생들을 고려한 자막 제공이 있다(황윤자·박현미·안미리, 2014, 131에서 재인용).

## 3) 다중적인 참여기회 제공

다중적인 참여기회 제공(multiple means of engagement)은 배움의 이유(why)와 동기 그리고 참여에 있어서 모든 학습자는 생물학적 변인에 따라 관심 및 집중력의 폭이 다양하고 상이하게 발달한다는 것에서 제안된 원리

이다(이학준·권순우·김용성, 2018, 288). 왜(why) 학습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융통성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일괄적인 과제 제시보다는 다양한 참여를 위해 토론하기, 노래와 랩 사용하기 그리고 스토리텔링 등이 제공될 수 있다. 이 외에도 학습 환경 내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 또한 충족시킬 것이 권유된다. 어떤 학생 경우 글이나 그림으로 제시되는 시각적 자극보다 청각적 자극을 선호할 수 있으며 문화적 영향, 배경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CAST, 2011). 이와 관련하여 로즈, 메이어 그리고 척(2010)은 정서적 지원으로 콘텐츠와 도구의 선택권 제공, 도전과 지원의 적음 수준 제공, 다양한 보상 및 인센티브 제공, 학습 맥락에 대한 선택지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황윤자·박현미·안미리, 131에서 재인용).

〈표 7〉 UDL의 3가지 네트워크와 3가지 원리

UDL의 원리	집중 영역	교수방법
다중적인 표상방법 제공	무엇(what)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사례제공</li> <li>- 다양한 매체와 형태 제공</li> <li>- 배경지식 및 배경맥락 지원</li> </ul>
다중적인 표현방법 제공	어떻게(how) 학습하게 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과 함께 연습 기회 제공</li> <li>- 융통성 있는 기회 제공</li> </ul>
다중적인 참여기회 제공	왜(why) 학습해야 하는가에 대한 동기유발 및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과 도구에 관한 선택권 제공</li> <li>- 조절 가능한 도전 수준 제공</li> <li>- 보상에 관한 선택권 제공</li> <li>- 학습맥락에 관한 선택권 제공</li> </ul>

출처: 황윤자·박현미·안미리(2014, 7)내용을 재구성함

### 3. UDL 9가지 가이드라인

UDL의 세 가지 원리는 모든 학습자에게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교육과정의 설계와 발달을 안내해 주는 기초적인 틀로서 작용하고 있으며(이학준·권순우·김용성, 2018, 289; 이학준 외, 2019, 383) CAST(2011)는 교사들이 수업 설계 시 어떤 도구, 자원, 전략을 선택하면 좋을지 안내 및 제안하기 위해 3가지 원리를 기반으로 9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표 8>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듯이 이는 체크포인트로도 작용하여 교육현장에서 보편적학습설계의 적용을 체제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현장교사는 자신의 수업이 보편적 학습설계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이학준·권순우·김용성, 2018, 289).

<표 8> UDL 9가지 가이드라인 2.0 및 분석기준

I. 다중적인 표상 제공	II. 다중적인 표현방법 제공	III. 다중적인 참여기회 제공
<p><b>1. 인지방법의 다양한 선택 제공</b></p> <p>1.1. 정보의 제시 방식을 학습자에게 맞게 설정하는 방법 제공하기 1.2. 청각 정보의 대안 제공하기 1.3. 시각 정보의 대안 제공하기</p>	<p><b>4. 신체적 표현수단을 제공</b></p> <p>4.1. 응답과 자료 탐색 방식 다양화하기 4.2. 다양한 도구들과 보조공학(AT) 기기 이용 최적화하기</p>	<p><b>7. 흥미를 도우는 자율성 최적화하기</b></p> <p>7.1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 최적화하기 7.2 학습자와의 관련성, 가치, 현실성 최적화하기 7.3 위협이나 주의를 분산시킬 만한 요소 최소화하기</p>
<p><b>2. 언어, 수식, 기호의 다양한 선택 제공</b></p> <p>2.1 어휘와 기호의 뜻을 명료하게 하기 2.2 글의 짜임새와 구조를 명료하게 하기 2.3 문자, 수식, 기호의 해독 지원하기 2.4 범언어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기</p>	<p><b>5. 표현과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선택 제공</b></p> <p>5.1 의사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대체 사용하기 5.2 작품의 구성과 제작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기 5.3 연습과 수행을 위한 지원을 점차 줄이면서 유창성 키우기</p>	<p><b>8. 지속적인 노력과 끈기를 돕는 선택 제공</b></p> <p>8.1 목표나 목적을 뚜렷하게 부각시키기 8.2 난이도를 최적화하기 위한 요구와 자료들을 다양화하기 8.3 협력과 동료 집단을 육성하기 8.4 성취 지향적 피드백</p>

2.5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의미를 보여주기		을 증진시키기
<b>3.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선택 제공</b>  3.1 배경 지식을 제공하거나 활성화시키기 3.2 패턴, 핵심 부분, 주요 아이디어 및 관계 강조하기 3.3 정보 처리, 시각화, 이용의 과정을 안내하기 3.4 정보 이전과 일반화를 극대화하기	<b>6. 자율적 관리기능에 따른 다양한 선택 제공</b>  6.1 적절한 목표 설정에 대해 안내하기 6.2 계획과 전략개발 지원하기 6.3 정보와 자료 관리를 용이하게 돕기 6.4 학습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b>9. 자기조절능력을 키우기 위한 선택 제공</b>  9.1 학습동기를 최적화하는 기대와 믿음을 증진시키기 9.2 극복하는 기술과 전략들을 촉진시키기 9.3 자기 평가와 성찰을 발전시키기

출처: 이학준, 권순우, 김용성(2018, 289)

#### 4. 국내 UDL의 선행연구 분석

UDL은 국내에서 통합교육의 확대가 추진되고 사회적 환경의 다변화에 따라 일반학급 구성원이 다양해지는 현황에 맞춰 소개되기 시작했으며(김남진·김용욱, 2017, 158) 2006년 이후부터는 UDL 적용 대상과 영역이 점차 확장되었다(배찬효·정동영, 2013, 57). UDL의 확장은 일반교실 환경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성취도 향상이라는 교육적 및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도 부각 받고 있다(김남진·김용욱, 2017, 158). 최근 다문화와 연계되어 진행된 UDL 연구로서는 송진숙(2010), 안미리(2012) 등이 있으며 모두 다문화교육의 교수방법이 다양하지 못하여 개인차가 존재하는 교실 환경에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있다(송지숙, 2010, 115; 안미리, 2012, 25-38). 특히 안미리(2012)는 기존의 다문화교육이 대상을 ‘소수’에 제한하여 언어 지원, 학습 지원 등의 특별반과 특별시간으로 오히려 “다양성”을 더 부각했으며 특별교육환경보다는 모든 “학습자의 다양성”을 존중해줄 수 있는 “보편적 교육”을 통해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

고 차별이 아닌 차이를 배려하는 학습문화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25-38).

## IV. 다문화시대의 UDL 기반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시대에 요구되는 기독교통일교육을 살펴보고 보편적학습설계의 적용을 통한 기대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보편적학습설계가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방법론인지 확인하고 더 나아가 보편적학습설계가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의 확산에 도움을 줄 적절한 모델인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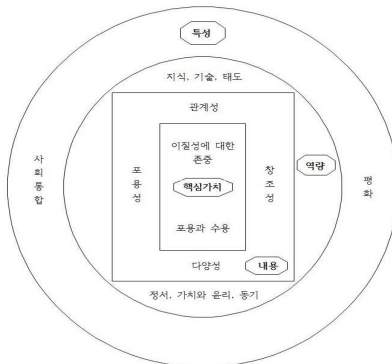
### 1. 다문화시대의 기독교통일교육

기독교통일교육은 “통일”을 민족주의나 단일민족 등 정치적 사상이나 접근으로 정의하지 않고, ‘평화와 화해의 복음의 실천’이라는 성경적 ‘통일’로서의 보편적인 의미에서 ‘통일’로 정의하고 있다(민정하, 2014; 유재덕, 2015; 정연주, 2015; 조만준, 2017). 이는 통일의 의미가 ‘남북 간의 분단’의 극복에 제한되지 않고 이질적인 사람과 사람 간의 분단의 회복인 ‘사회적 통합’으로서의 통일을 의미하며 ‘통일’이 곧 모두의 책임이자 사명임을 제시한다(양금희, 2016, 243-245). 곧, 기독교통일교육이 참여하는 개인 혹은 집단의 문화나 정체성을 제한하거나 고립시키지 않고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참여권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이다.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기독교통일교육의 목적과 특성을 반영하지만,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포용’과 ‘수용’의 가치를 중점으로 이질적인 집단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공존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통일교육을 제공한다(정연주, 2015, 91-94). 구체적으로는 문화적



간극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이를 포용하고 평화적으로 공통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한다(양금희, 2016, 252-258).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의 내용으로는 다양성, 관계성, 창조성, 포용성의 교육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 다양한 관계 사이의 회복을 위한 노력, 평화를 위한 역량 개발 등 다름에 대한 포용하는 마음과 태도 함양에 집중하고 있다(민정하, 2014; 정연주, 2015). 중요한 것은 이러한 능력 배양이 통일을 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통해 개인 스스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준비되어가는 것에 있다(양금희, 2016, 255). 따라서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를 동일하게 중요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수전략, 교육 기회 그리고 경험을 제공하여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강조한다(유재덕, 2015, 265-266). [그림 1] 은 다문화 시대에 요구되는 기독교통일을 거시적, 미시적 관점에서 요약한 것이다. 외각을 둘러싸고 있는 동그라미는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을 거시적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으며 그 안에 포함되어 직각 형은 다문화적 기독교통일교육의 미시적 관점을 다루고 있다.



[그림 1] 다문화 시대의 기독교통일교육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관점

## 2.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의 UDL 적용에 대한 고찰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은 통일을 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통해 개인 스스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통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꾸준히 준비하는 것을 강조한다(양금희, 2016, 255). 특히 상이한 집단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포용’ 및 ‘수용’하는 관용적 태도 함양에 중시에 둔다(정연주, 2015.6)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이 차이를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 교수 방법적으로 이 또한 뒷받침해 주는 것은 필연적으로 생각된다. 특히 통일이 사회 모든 구성원의 참여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과 공동의 목적 및 가치규범을 함께 만들어가는 합동 작업임에 있어(양금희, 2016, 243-245) 다양한 학습자의 상이한 학습 스타일을 배려하고 개인인의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의 제공은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의 핵심 요소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습자의 개별적 특징과 차이를 고려하는 UDL의 적용은 합리적이며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UDL은 다방면에서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이 실현하고자 하는 ‘포용’과 ‘수용’을 방법론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곽승철, 2010, 10). 첫째, UDL은 이질적인 학습자의 특성을 배려하고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융통성 있는 교수-전략을 중심으로 두고 있으며 광범위하고 다양한 학습맥락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학습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것을 전제로 한다(Rose, Meyer & Chuck, 2010). 이러한 철칙은 곧 다중적인 표상방법, 다중적인 표현방법 그리고 다중적인 참여 기회 제공을 세 가지의 원리로 제시되는데(CAST, 2008), 이는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이 추구하는 다양한 교육의 경험과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기준으로 작용될 수 있다. 둘째, UDL은 3가지의 이론을 기반으로 9가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현장에서의 보편적학습설계의 적용을 체제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돕는 기준으로 적

용될 수 있다(이학준·권순우·김용성, 2018, 289).

예시로 민정하(2014)가 제시한 다문화 기독교 통일교육의 내용에 UDL의 프레임을 적용할 경우, 모든 정보나 지식 교육 영역에서 UDL의 다중적인 표상방법 제공을 적용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민정하가 제시한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 내용 중 일부를 다중 언어로 제공하거나, 시각적 요소인 사진과 그래프 등 풍부하고 다중적인 매개와 방법을 활용하여 제공하였을 때 다양한 학습자의 이해력이나 습득을 효과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비판적 사고 함양, 갈등 해결 능력 등 전략 및 기술 함양에 있어서는 UDL의 다중적인 표현 방법을 적용해볼 수 있다. 이는 학습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학습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필요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터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간 문화적 이해력 함양과 같은 정서적 영역으로는 UDL의 다중적인 참여기회 제공을 적용해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학습매락에 관한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적절한 보상을 줌으로써 동기를 증가시킬 수 있겠다. 구체적인 UDL 적용 방안은 <표 9>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9> UDL을 적용한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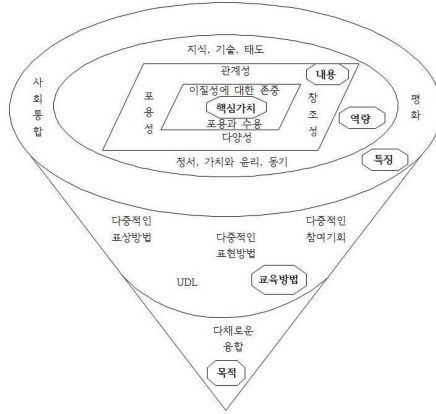
다문화 기독교 통일 교육	교육 내용	UDL 원리	교수 방법의 예시
다양성의 교육	다양성에 대한 이해	다중적인 표상방법	다양성에 대한 안내를 다중 언어로 제공 (한국어, 일어, 중국어) <UDL 가이드라인 2.0 1-3 참고>
		다중적인 표현방법	다양한 학생의 학습 스타일과 수준을 배려하여 보조기와 주기적인 피드백 제공 <UDL 가이드라인 2.0 4-6 참고>
		다중적인 참여기회 제공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리포트, 드라마, 연극 등 다양한 학습 형태로 제공하고 학습자에게 자율적 선택권 제공 <UDL

			가이드라인 2.0 7-9 참고)
관계성의 교육	하나님/ 자신/타자/ 세계와의 관계	다중적인 표상방법	협동, 공감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적 요소 활용: 수화/자막/사진/그래프 등 〈UDL 가이드라인 2.0 1-3 참고〉
		다중적인 표현방법	협동 활동에 지원 및 피드백을 점차 줄이며 학습자의 주인의식 및 유창성 키우기 〈UDL 가이드라인 2.0 4-6 참 고〉
		다중적인 참여기회 제공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자율적 관리기 능에 따른 다양한 목표설정과 선택권 제공 〈UDL 가이드라인 2.0 7-9 참 고〉
창조성의 교육	하나님 나라의 평화 비전	다중적인 표상방법	하나님 나라의 평화 비전에 대한 배 경지식을 제공하고 핵심 부분을 색깔 로 강조하기/관련된 내용을 성경구절 으로 안내하기 〈UDL 가이드라인 2.0 1-3 참고〉
		다중적인 표현방법	하나님 나라의 평화 비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적절한 목표 설정에 대해 안내하기 〈UDL 가이드 라인 2.0 4-6 참고〉
		다중적인 참여기회 제공	개인의 학습동기를 최적화하기 위한 기대와 믿음 칭찬과 격려로 전하기 〈UDL 가이드라인 2.0 7-9 참고〉

출처: 민정하(2014, 119-125)와 황윤자·박현미·안미리(2014,7)내용을 재구성함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에 UDL이 교육 방법론적으로 적용될 때 이질성에 대한 ‘포용’과 ‘수용’은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일차원적으로는 학습 내용에서, 그리고 이차원적으로는 교수 방법론에서 반영되어 온전한 모습의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온전’한 모습이란 모든 사람에게 일관된 모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점차 하나 되고, 융합되는 ‘과정’으로서의 모습을 의미한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다문화 기독교교육의 형태는 다양하고 다채로울 수 있으나 이는 곧 개개인의 차이를 수용하고 포용함에서 나타나는 모습일 뿐, 중심은 조화

와 융합을 목표로 하는 사람과 사람 간의 통일에 기반을 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2] UDL를 적용한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의 이차원적 형태

## V. 나가는 말

현재 한국은 다문화라는 현상 속에서 통일을 준비하게 되었다. 다문화라는 사회적 다변화는 “통일”의 개념을 단순히 남북이 체제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넘어 이질적인 사람과 사람이 이해와 존중을 통해 융합되는 ‘과정’으로서 해석해야 함을 제시한다. 즉, “통일”의 개념이 남북간의 관계에 국한되어진 개념이 아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의 융합으로 간주되어 모두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과제로 확장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기독교통일교육 또한 “통일”을 “남북통일”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 간의 “평화와 화해의 복음의 실천”으

로 확장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며 다문화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에 대한 개념이나 방법론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로 이의 효과를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UDL의 적용은 이러한 맥락에서 더욱더 유의미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UDL은 개인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수용을 철학적 기초로 두고 있으므로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의 목적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UDL은 모든 학습자가 상이한 학습속도, 성향, 취향 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차별성을 존중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맥락 제공과 지원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실현을 돕는 이론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는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의 실행에 있어 구체적인 틀을 제공해 줄뿐더러, 다양한 학습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여 학습자 스스로 경험을 통해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용의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UDL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나 동시에 융통성 있는 교수전략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습내용과 맥락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활용될 수 있다. 이는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의 자체적인 특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교수전략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의 획일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에 대한 UDL 적용은 현존하는 수많은 다양함 가운데 통합을 실현하고자 시도된 일련의 교육방법론적 연구이며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의 유의미한 발전과 확장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 참 고 문 헌

- 곽승철 (2010). 보편적 교수 학습설계가 장애학생의 교육적 통합에 주는 함의. **한국 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 53(4), 1-29.
- 김남진·김용욱 (2017). 보편적 학습설계(UDL)와 차별화 교수의 관계 고찰.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8(4), 157-182.
- 김용성·이학준·오재분·윤정하 (2019). 뇌 과학 이론에 기초한 보편적 학습설계 표상의 원리 및 교수 전략 탐색.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0(2) 391-425.
- 노석준 (2012). 접근 가능한 WBI설계·개발을 위한 교수설계원리로서의 '보편적 학습설계(UDL)'의 적용 가능성 탐색. **한국교육포럼**, 11(1), 97-125.
- 민정하 (2012). 공공신학에 기초한 다문화기독교통일교육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박미라 (2011). 다문화 기독교교육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학생교육: 기독교 집단상담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27, 243-270.
- 박성춘 (2016).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 서울: 양서원.
- 배찬효·정동영 (2013). 보편적 학습 설계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6(1), 45-67.
- 배한동 (2009). **새로운 통일교육론**.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 송진숙 (2016). 보편적 학습설계에 기반한 다문화 여가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제고. **호 텔리조트연구**, 15(1), 113-129.
- 안미리 (2012). 21세기 교육을 위한 보편적 교수-학습전략 : Barrier Free and Border Free. **한국 교육시설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5-38.
- 양금희 (2016).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교회의 기독교 통일교육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46, 231-263.
- 유재덕 (2015). 기독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모색: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42, 241-270.
- 윤응진 (2012). 기독교통일교육은 평화교육이어야 한다. **기독교교육논총**, 29, 25-56.
- 이가현 (2015). 삼위일체와 평화의 원리에 따른 기독교통일교육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재열·조병희·장덕진·유명순·우명숙·서형준 (2014). 사회통합: 개념과 측정, 국제 비교. **한국사회정책**, 21(2), 113-149.
- 이제현 (2014).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방안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한동대학교 교육대학원, 포항.

- 이학준·권순우·김용성 (2018). 청각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성: 보편적 학습설계(UDL) 원리 중심의 논의.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7(4), 283-300.
- 이학준·김용성·권순우·이선영 (2019). 온전한 통합교육: 마음의 소통과 보편적 학습설계.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0(2), 377-389.
- 이현우·한상진 (2107). 기독교적 남북통일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한 방향성 연구. **대학과 선교**, (33), 153-177.
- 임창호 (2017). 한국교회 통일교육의 시스템화 가능성 모색. **기독교교육논총**, 51, 11-40.
- 정연주 (2015). 다문화적 접근에 기초한 기독교 청소년 통일 교육연구.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울.
- 조만준 (2017). 다문화 사회의 기독교 통일교육을 위한 제언. **다문화와 평화**, 11(3), 179-195.
- 조정아 (2007).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통일연구원**, 16(2), 285-306.
- 최윤철 (2016). 통일 국민과 이주자의 사회통합. **통일인문학**, 66, 49-83.
- 통계청 (2018). **국적 지역 및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에서 2020.06.08. 인출.
- 황윤자·박현미·안미리 (2014). 사이버대학 이러닝 콘텐츠의 보편적 학습설계 현황과 개선방안. **평생학습사회**, 10(2), 125-153.
- CAST (2008). *UDL Editions*. 2020.06.08 <http://www.cast.org>에서 인출.
- CAST (2011). *UDL guidelines-version 2.0*. 2020.06.08 <http://www.udlcenter.org>에서 인출.
- Rose, D. H., Meyer, A., & Chuck. H. (2010). **보편적 학습설계. 접근 가능한 교육과정과 디지털 테크놀로지**. 안미리·노석준·김성남 역.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원저 2004 출판)
- Hall, T. E., Meyer, A., & Rose, D. H. (2012).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in the classroom*.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Martiniello, M. (2008).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윤진 역. 과주: 한울아카데미. (원저 1997 출판)
- Meyer, A., Rose, D. H., & Gordon, D. (2014).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Theory & practice*. Wakefield: CAST Professional Publishing.
- Rose, D.H., & Meyer, A. (2002). Teaching every student in the digital age: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Alexandri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Abstract

---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UDL to Christian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Era of Multiculturalism

Seongkyeol Kim

Daum School

Milee Ahn

Hanyang University

South Korea is currently facing multiculturalism, appropriately demanding broadened view and access to the study of Unification, especially in terms of who should be the subject. In congruence, recent Unification Education studies are proposing values stressed in Multiculturalism to function as the core ground, upon which other traits and contents are to follow. Similarly, Christian Education field is also reflecting the recent trend, welcoming 'everyone' to participate in preparing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However, most studies consist of suggesting and introducing directions for new approaches, not so much of dealing with systems or guidelines for practical practices. Information provided in fragments can rather cause confusion in understanding the concept, and lack of specific guidelines can soon lead to poor performances. In this study,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UDL) is introduced as a methodology to be examined, whether it could effectively embody and systemize the newly emerged Multicultural Christian Unification Educ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generalize the concept of Christian unification education introduced in the multicultural era and 2) examine whether UDL is suitable for uniformizing and spreading the Multicultural approach of Christian Unification Education. Specifically, this study highly focused on examining whether UDL is a suitable methodology to

achieve the goal of Multicultural Christian unification education, while uniformizing the diversities within multicultural Christian Unification Education. Through a thorough research, it was proved that the purpose and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Christian unification education are similar to those of UDL in that both focus on accepting heterogeneity as something “different” rather than something “wrong.” Also, it was foun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and guidelines of UDL can effectively unify while respecting the diverse methodologies used in Multicultural Christian Education.

《 **Keywords** 》

Multicultural era, Multiculturalism, Unification, Christian unification education,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 투고접수일 : 2020년 8월 27일
- 심사완료일 : 2020년 9월 29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9월 29일